

노은이에게

안녕노은아

오늘은 없어서 책읽기 딱 좋은 날씨가야
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랑 공감이 많이 됐어.
내가 공감했던 이유가 2가지가 있어. 첫번째는 같은
학년이기 때문이야 4학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잘
맞았던거 같아 두번째 이유는 나도 학교에서 부회
장이 심찬성 형 같은 부회장이 있었거든. 이 책을
읽으며 공감을 많이 할수 있었던거 같아.
나는 네가 대단한 일과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
각해. 먼저 심찬성 형이 혼자 힘들고 외로워할
때 너의 대단한 항기능력을 이용해 심찬성
형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도 많이 해줬잖아. 나
같았으면 나를 괴롭히고 시켜버렸던 형인데 그 형
이 힘들때 같이 있어주고 우리를 해주는 어려
웠을거 같아. 또 나도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
한 적은 없지만 누가
누구한테 괴롭히고
따라가는거는 많이 봤
거든.



그런데 나서지는 못했어. 하지만 너는 심찬성 형이 오
오소희 누나를 괴롭히는 걸 보고 도와줄려고 했잖아. 또 너의
다른 능력인 냉세를 잘 맡을 수 있다는 능력. 이것도 네가
잘 활용하고 있는 거 같아. 냉세를 잘 맡으니 다른
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아. 400
년에 한번 나오는 항기도사가 된 건 정말 기
쁜 일야. 노을아! 너는 사람들에게 꼭 항기로
남고 싶다고 했지. 나는 사람들에게 구름향으
로 남고 싶어. 왜냐하면 꾸밈없고 깨끗한 느낌
이잖아. 그래서 이사랑은 뭔가 깨끗하구나. 이렇게
생각 할 수 있게 말이야. 노을아 나한테도 어떤 냉
새가 나는지 말아줘.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말이야.
그럼 노을아 안녕.

